

내 삶의 세계 전부라는 편협함 버려야



성태용 교수의
손오공이 기가 막혀

50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라

전반에 약속한 귀신 이야기.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? 흠... 우선 나칠계님처럼 귀신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, 도대체 귀신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? 아니면 사람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것일까요? 자,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 보기로 하죠?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? 흠, 반반은 분들이 손을 드시네요. 그럼 없다고 믿으시는 분? 역시 꽤 많은 분들이 손을...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보아 있다고 믿으시는 분과 없다고 믿으시는 분이 반반 줌 된다고 보아야 할까요? 어 그런데 나칠계님, 갑자기 다 지난 마당에 힘차게 손을 드시는 것은? 있다고 믿느냐 없다고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? 그럼 무슨 문제인가요? 헉! 귀신을 분명하게 본 사람이 있다고요?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요? 어머니, 반가워라. 이런 복된 일이! 그렇지만 그냥 본 사람 있다고 전해들은 것이라면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군요. (그간 나칠계님 행태로 보아서도 그리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...) 본 분이 정말 믿음만한 분인가요? 으흠? 나칠계님 아버지이러구요? 아버지가 자식한테 거짓말을 할 까닭이 없으니 믿어도 좋을 것이라구요? 그럼 그럴 것 같군요. 아무래도 자식한테 거짓말을 하는 아버지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요. 물론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든가, 피치 못해서 약간 거짓을 섞는 경우는 있었지만, 귀신 만난 이야기는 그럴 이야기도 아니고... 그럼 나칠계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?

나칠계 : 제 아버지가요, 시골 분이시거든요. 아주 시골은 아니구, 대도시 근방인데, 어느 날은 피치 못하게 밤늦게 이웃마을을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. 어찌다 보니 일이 늦게 끝나서 새벽 두시쯤에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, 좀 밤길이라 무서웠지만, 그리 먼 길도 아니고 해서 용기를 내어 돌아오는데... 오는 길에 묘지가 많은 산자락을 지나오는 곳이 있었어요. 그러지 않아도 좀 쭈뼛한 느낌이 들어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는데, 멀리 보이는 뒷등에 웬 하여벌건한 것이! 깜짝 놀라 보니 완전히 사람 모습이라네요. 입은 웃이 좀 치렁한 것이 해괴한데다가, 이상한 춤 동작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네요. 새벽 두시경에 무덤에 그것도 이상한 웃을 입고 춤 동작같은 것을 하는 게 무어겠어요? 너무 놀라서 으악! 하고 줄행랑을 쳤다네요. 뒤에서 깔깔~ 음산하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, 금방 뒷덜미를 잡아채는 것 같아 정신없이 달아났어요. 겨우 동네로 돌아와서 잠도 못자고 날을 새웠어요. 그 이른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그 묘지 있는 곳으로 가 보았더니 아무 자취도 없었어요. 그런 귀신이 틀림없지요. 아버지도 틀림없는 귀신이었다고 하시더군요. 새벽 두



그림 · 최주현

시에, 그것도 묘지 위에서 너털너털 이상한 춤추고 있는 것이 귀신 아니면 무엇이겠어요? 제가 귀신 좀 무서워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거든요...

화들짝! 무어라구요? 그런 사연이? 삼태선생 갑자기 필름이 맹렬하게 뒤로 감기네요.

<삼태선생의 회상> 제가 젊은 시절 수행의 열기에 몇 달씩 늑지 않고 참선하는 수행-장좌불와라고 하던가요? -까지 하던 때가 있었네요. 절은 아니고 시골에 있는 집을 수행도량으로 만든 곳이었네... 여름 더운 날에 방에서 참선하고 있으면 매우 답답하고 하여 뒷산 묘지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곳으로 나가곤 했어요. 무섭지 않나구요? 첫날은 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. 그런데 하루만 지내면 묘지가 그렇게 아늑하고 편안할 수 없어요. 거기다 잔디도 잘 깔리구, 비석이 있어 기대기도 좋고...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 애용을 했죠. 그러던 어느 날... 새벽녘이었을 거예요. 무덤에서 참선을 하다 몸도 좀 지푸듯하고 하여 태극권을 하면서 몸을 좀 풀고 있었지요. 태극권 하시나요? 중국 사람들 공원 같은 곳에서 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셨을 것 같네요. 그런데 저 멀리 무덤 밑으로 이웃 동네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, 그 시간에 웬 사람이 넘어 오더라 말씀.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치더군요. 어?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나를 귀신으로 여긴 것 같아서 허허 웃고 말았었는데...

아하! 반가워요. 나칠계님. 세상이 넓고도 좁다는 말을 실감 못했는데, 그 때 달아났던 분이 바로

삶과 죽음의 문제가 화두 사후세계 단정짓지 말아야 무지로 인한 두려움 떨쳐야

나칠계님의 아버지였군요. 이런 인연이! 나칠계님이 제 이야기 계속 듣고 계신 것도 아마 그런 인연이 있어서 아닐까요? 별로 제 이야기 깊이가 공감한다던가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건 분명 그런 인연 때문일 거예요. 참으로 이렇게 공교로울 대가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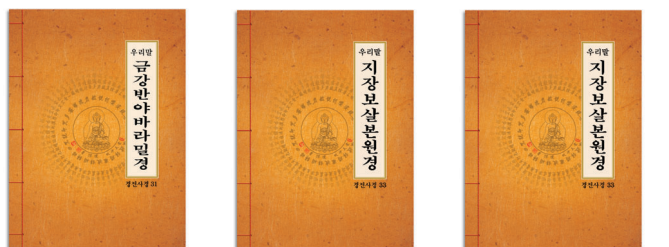
앵? 그런데 그렇게 반가워할 할 일이 아니군요. 귀신 본 사람 있다는 나칠계님의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네요. 확실히 귀신 본 분이 있다 하여 좋아했더니... 애고, 다른 분을 찾아와야 되겠네요. 그런데 왜 그리 귀신 본 사람이 있다니가 좋아하느냐구요? 또 왜 그렇게 귀신 본 사람을 애타게 찾느냐구요? 그거야 당연하잖아요? 귀신을 확실히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공금증이 풀리고,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세계가 전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구요. 그리고 정말 제가 직접 만날 수만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. 직접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? 너희들도 태어남과 죽음이 있느냐? 우리가 죽으면 너희들 같은 귀신이 되는 거냐? 기타 등등...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중요한 의문들을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귀신 만나기 프로젝트라고 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, 아예 실행을 못했거든요.

귀신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요. 그 계획의 일부를 좀 들려 드릴까요. 아주 참신한 게 많지만 특별히 숨기지 않고 조금만 알려 드릴게요.

우선 중요한 것은, 귀신은 우리를 무서워할 것 같다는 점입니다.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들은, 미리부터 잘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? 귀신이 우리 세계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, 그 세계와 우리 세상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귀신도 우리를 잘 몰라서, 만약 처음 만나면 우리를 두려워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아닐까요? 그런데요, 제 아이디어를 도용한 영화가 있어요. 어찌다 봤는데 분명 도용당한 것 같아요. '더 아더스(The Others)' 라는 영화입니다. 꽤 오래 전의 영화인데, 귀신 일가족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영화더군요. 그 영화 제작년도보다 제가 귀신만나기 계획 수립한 게 훨씬 앞이나가 도용의 혐의가 질단 말씀이죠.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. 삼태선생의 생각에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.

그런데 문제는 말이지, 이런 계획이 성공한다 해도 정말 마지막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귀신도 자신들의 세계 밖에 몰라서 제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대화를 터도 소용없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 그리고 요즘엔 아무래도 이럴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생각이 기울네요. 귀신이라고 다 알겠어요? 그 세계에 갇혀 있으면 역시 그 세계밖에 모르겠지요. 그렇다 하더라도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테니 전혀 성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... 그래서 좀 사들해진 삼태선생. 괜히 귀신 만나기 겁나니까 그런 거 아니냐구요? 나칠계님! 제가님의 아버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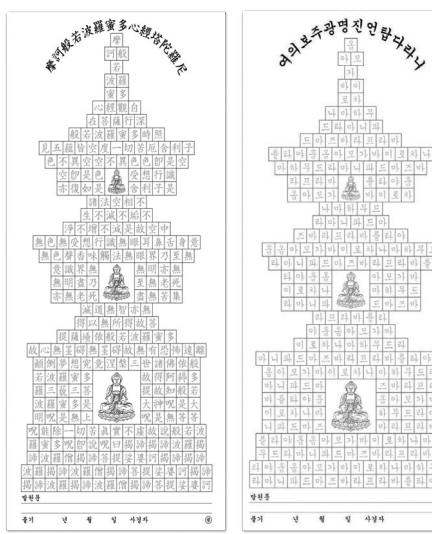
경전사경 · 사경지



경전사경 제31호 우리말 금강경
할인가 1,800원 (100권 이상)
정가 3,000원 (1권)
• 제본 : 좌철 무선제본
• 크 기 : 19cm×26.2cm

경전사경 제32호 우리말 지장경(상)
할인가 2,100원 (50권 이상)
정가 3,500원 (1권)
• 제본 : 좌철 무선제본
• 크 기 : 19cm×26.2cm

경전사경 제33호 우리말 지장경(하)
할인가 2,100원 (50권 이상)
정가 3,500원 (1권)
• 제본 : 좌철 무선제본
• 크 기 : 19cm×26.2cm



반아심경/평명진언 탐사경
할인가 150원(500장 이상)
정가 200원
• 구 성 : 한지날장
• 크 기 : 636mm×313mm
• 종 류 : 한문, 한글

파라핀양초(특)
정가 50,000원
1.80×12병 / 한불양초



11호~17호 법화경(한문) 1~7
할인가 4,200원(50권 이상)
정가 6,000원(1권)

19호~25호 법화경(한글) 1~7
할인가 3,500원(50권 이상)
정가 5,000원(1권)



34호~40호 우리말법화경 1~7
할인가 2,100원(50권 이상)
정가 3,500원(1권)

묘법연화경사경공경 <주문생산>
정가 5,000원(1권)
※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

동진기획 · 붓다쇼핑
☎(051) 515-8888

www.buddhashopping.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-2
TEL.(051)515-2988, 555-1087, 508-9377~8 FAX.(051)508-0101
인터넷전화. 070-7425-0518 H.P 010-3554-2988

양초 할인판매!!
고급 국내산 양초 2박스 이상일때 무료배송

- 밀 대 (70개입) @ 90,000원
- 돈타레 (40개입) @ 90,000원
- 원기둥 (20개입) @ 90,000원

예수재함A (50개 1박스) 할인가 50,000원 (50개 이상)
예수재함B (50개 1박스) 할인가 60,000원 (50개 이상)

제브라붓펜 3,4,5호 할인가 2,100원(50개 이상) 정가 3,000원

한지점은 위패(대/중/소)/인쇄점은 위패(대/소) 정가 30,000원 / 30,000원 (100개) 할인가 @270원 / @270원 (1000개 이상)

한지 인쇄점은 영가옷(남/여) 정가 30,000원 (100벌) 할인가 @270원 (1000벌 이상)

중이신발(남/여) 1컬레 100개 이상 할인가 1,300원 정가 1,500원

영가옷 B형-남 할인가 1,000원 (100벌 이상) 정가 1,200원
영가옷 B형-여 할인가 800원 (100벌 이상) 정가 1,000원
영가옷 C형-남 할인가 800원 (100벌 이상) 정가 1,000원
영가옷 C형-여 할인가 160원 (600개 이상) 정가 200원

수자영가옷 할인가 600원 (100벌 이상) 정가 800원
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원 (200개 이상) 정가 1,000원
금강경타다라니 할인가 160원 (600개 이상) 정가 200원

※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,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.
※ 불교용품카다루키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.
[불교달력, 서적, 사경지, 연등, 염주, 향, 양초, 다포, 4.8용품, 백중용품]